

오륙도 칼럼



유병근

봄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환한 꽃을 닮았다. 겨우내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치솟는 식물처럼 사람들은 날이 풀리자 밖으로 나가는 걸음이 잦다. 팽팽하게 공중에 치솟아 있던 햇빛은 나뭇가지도 파르스름한 일노와 꽃눈을 뚫어 치장한다.

사람의 몸에도 옷치장이 화사해

진다. 며칠 전의 칙칙한 코트를 벗어놓고 망사 같은 옷으로 몸을 가꾼다. 옷이 무거운 계절이 겨울이려면 봄은 그것을 한 겹 한 겹 벗는 계절이다. 성급하게 벗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봄은 발코니 안에도 발코니 밖에도 있다. 멀리 보이는 산 기운이 차차 파르스름한 기운을 드러내며 가까이 온다. 며칠 전에 본 아파트 입구의 모파나무는 봄이 오는 달력이나 다름없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파르스름한 연두빛에 눈이 흘렀다. 얼어붙었던 가지를 비집고 솟아나는 잎노와 꽃눈에서 달력을 보듯 마음이 끌렸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강변이 있다. 강은 겨우내 강철처럼 얼어붙었었다. 강물은 꼼작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얼음 속에서 숨찬 길을 겨우 찾는 듯했다. 강물 흐르는 기척을 들을 수 있게 봄 햇살이 강에 내려앉아 얼음을 풀어주었을 때다. 강가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얼음 속에 갇혀 있던 피라미새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다. 추위에 오그리고 있던 강목에도 파르스름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속이 보송보송 눈을 뜨는 것 또한 반가운 봄맞이이다.

봄은 해방의 계절이다. 사월에는 잔인한 사립구가 있긴 했다. 그것

은 단혀 있던 말문을 세상에 트게 한 자유를 위한 거대한 행진이었다. 굳은 땅을 뚫고 치솟는 개구리가 있었고 가느다란 새 싹이 흙을 밀어 올리며 얼굴을 내미는 새로운 세상이 있었다.

강마루 나뭇가지에서 잎노이 트고 꽃눈이 트느라 나뭇가지는 새살을 알리는 상처를 달게 받기도 했다. 봄은 아슬아슬하게 왔다.

목련 망울이 부풀어 올라 딱 터질 듯했다. 어저께 산책길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부신 아름다움을 시샘하느라 목련이 피어 한창일 때면 어김없이 꽃샘바람이 찾아왔다.

뜻밖의 강추위가 연한 꽃잎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그 서늘에 나

플나플 피어오르던 꽃잎에 시커먼 상처가 남는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봄은 추츰거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다. 사월은 사월死越이다. 죽음을 초월하는 때로운 힘이 봄 속에 있다.

그런 의미와는 달리 봄은 실없이 나른한 춘곤증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것은 봄이란 어감이 사람을 곤하게 하는 것 같다. 봄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웬지 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 차라리 스프링이라고 강하게 발음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웅수철을 뜻하는 스프링 속에서 푹 푹 뒤는 강인한 힘을 구할 수 있다. 땅을 박차고 치솟는 새싹, 그리고 나뭇가지에서 터지는 푸른 잎에 단단한 스프링이 매달려 있음을 느낀다.

봄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일방적인 오류에 지나지 아니하겠지만 봄은 춘곤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으로 가는 계절임은 반가운 일이다. 하기에 일년지계一年之計는 재

어춘在於春이라고 했다. 봄 농사를 거르면 한 해의 수확을 놓친다. 하기에 봄은 경작의 첫 삽을 뜨는 계절이다. 그러기에 봄은 한 해의 계절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서 계절을 이끄는 선두주자인 멋진 달이다.

그럼에도 봄을 시샘하는 것이 또 있다. 황사가 그것이다.

먼 중국대륙을 지나 서해를 거쳐 치닫는 황사는 모처럼 솟아오르려는 봄의 생기를 꺾는다. 황사는 폐에 해롭다고 타이른다. 황사는 눈에 해롭다고 타이른다. 따질 것도 없이 건강에 이련저런 조심스런 봄은 봄을 쫓는다. 가정에서는 포근한 봄 햇살을 받아들이느라 열어둔 장독 뚜껑을 서둘러 닫아야 한다. 봄빛이 들어가기만 된장 간장 그리고 고추장도 제대로 맛이 들 것인데 황사는 그 맛에 해방을 놓는다고 할까.

하지만 봄은 꽃샘추위와 황사를 무릅쓰고 한 해의 첫머리에 더욱 든든한 짓발을 뚫는다. <수필가>



<195>

꽃들만 봄이온



봄의 향연



선우의

1000자 지혜 95

결과 속

다른 사람보다 잘 생겨야 하고, 돌보아야 하고, 튀어야 하고, 뚱가 달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겉수를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다. 기회가 있으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내보여야 예쁘다.

그것이 생존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그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돌보인다는 것은 좋다. 자신있게 담당하게 행동하는데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이 나쁘면 자칫 자기 자랑으로 보여 오히려 미움을 받기 일쑤다. <자랑 끝에 쉬슨다는 속담>처럼 지나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다.

몸집이 분수를 지켜야 본전을 잃지 않는다.

양자(陽子)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송(宋)나라에 가서 어느 객점에 묵게 되었다. 그런 데 객점 주인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는데 한 여자는 눈에 띄게 미인이고 또 한 여자는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다. 그런데 웬 일인지 주인은 얼굴이 못생긴 부인은 소중히 여기고, 잘생긴 부인은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까닭을 물어본즉, 이렇게 대답

하는 것이었다.

“잘생긴 아내는 자기가 잘생긴 것을 늘 자랑하여 귀여운 맛이 없어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많죠. 하지만 못생긴 아내는 자신이 예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하고 상냥합니다.

그러한 마음씨가 측은하여 오히려 귀엽게 보이고 못생겼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아내가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랑을 해댄다면 어쩌하겠습니까? 더욱 보기 싫어지겠지요.”

남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 있는 마음이다.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우면 길을 꾸미지 않아도 자연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속에서 우러나는 은은한 맛이 진국이며 본래의 맛이며 참 아름다움인 것이다. 현대의 의술로 외모는 쉽게 뜯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속마음을 끌어 고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높여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 외모는 진짜 왕팬이 마음을 담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형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관공서에 무궁화 심자

4월이 되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의 엄연한 국화로써 3천년 전부터 민족정서를 대표하는 꽃 무궁화가 벚꽃에 밀려 너무 무관심 받고 홀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에 가도 학교에 가도 무궁화 한 그루 발견하기 어려우며 벚꽃은 웬만한 공원도 도로변, 아파트 가로수에도 온통 심어져 4월이 마치 일본의 국화인 벚꽃으로 뒤덮인다.

심지어 축제마저 무궁화 축제가 들어 보지 못했어도 군항제니 벚꽃 축제니 하며 벚꽃을 기리고 구경하러 가는 축제가 부지기수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최소한 관공서에서는 국민정서나 교육상 반드시 무궁화를 심어 무궁화가 어떤 꽃인지 알게 해야 나라의 주체성과 민족정기, 주인정신을 일깨워 줄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나 각급 학교에는 반드시 무궁화를 의무적으로 심고 꽃밭도 불어 나라꽃임을 인식시키고 무궁화꽃이 활짝 피는 여름철에 축제기간도 가졌으면 한다. 우정렬(남천동)

선거 잇고 화합 다질 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별 탈 없이 끝났다. 선거기간동안 지역일꾼을 자처하며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만의 의지를 담은 공약을 밝혔다.

우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선자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싶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학교장과 협의를

학교를 노인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용호3동 박옥희 남의 권이에 답변 드립니다. 행정제안의 관리 및 사용, 수익하기는 관련 조례에 의거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해당학교장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점종사업 지도·점검

점종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우암1동 박지영님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예방접종시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은 현재 관내 26개소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는 필수 예방접종(10종) 시 1회당 5,000원을 지급하

아쉽게 낙선했던 후보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다. 모두들 선전했고 이제부터는 주민간의 화합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이 편지편이 아닌 남구민으로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도 여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먼저 나서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가능한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결 선거기간동안 다소 벌어진 간격을 좁히는 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남구의 발전과 주민 화합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교육과 관광, 문화의 중심지인 남구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 하나로 뭉쳐 선전 도시 남구 만들기에 나설 때가 왔다. 이인숙(용호4동)

자전거 도로 홍보를

날씨가 따뜻해진 봄이 되어 바야흐로 야외 스포츠의 계절이 다가왔다. 그중엔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남구에는 훌륭하게 정비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 나의 생각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노상수

지금의 21세기 정보화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도태될 만큼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학습을 통해 지역 주민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개개인의 능력이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을 떠 받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평생학습으로 지역을 살리고 또 알리면서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나는 2007년 9월부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진행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RHRD,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육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교육청, 대학교, 복지관, 문화원, 박물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원하는 과정들을 개설하여 대학교, 박물관, 여성회관 등에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였다.

그 이후 2010년까지 3년간 고학력 미취업자 300여명 중 80%인 240여명이 방과후 전문인력 또는 사서도우미, 코디네이터 등 학교와 다양한 기관에서 강사,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이공계출신 고학력 미취업 여성들의 방과후학교 과학강사 양성과정은 60여명 양성해 36명의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여 일자리 창출의 본보기가 됐다. 전국 최초로 양성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경우는 전국 초, 중학교가 거의 다 배치될 정도로 전문인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이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 등 약 3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국가와 시로부터 받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한 것이 지금도 자랑스럽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했던 교육청과 대학교, 복지관 등의 수많은 직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인연을 맺은 것이 나에게겐 더없는 자산이자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 다른 조직에서 서로를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각자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체되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생각하면 이 분들 때문에 정말 탄력 받으며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흥이 나는 일을 하게 해 준 분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추억하며 현재의 또 다른 일 속에서 어떤 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시한번 지역인적 자원개발사업과의 인연에 감사드리며 우리 남구가 부산은 물론 한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데는 무엇보다 유익적인 협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구청 평생학습추진관)

■ 살며 생각하며

공동체 의식의 의미와 중요성



김림이

공동체 의식이란 사전적 의미로 ‘공동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이나 감정’을 말한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협동과 단결이 잘 이루어지며 집단이 속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두리나 향약 뿐 아니라, 정월대보름 같은 놀이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고,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조된 민화나 옛이야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70·80년대에도 ‘공동체’라는 개념은 아니었지만 협동이나 단결,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공동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 때에는 경제개발이라는 국민들의 공통된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협동이나 단결

정신이 더욱 강조되었던 때이다.

한글에서 ‘우리’는 ‘나와 너, 함축된 의미’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우리학교, 우리 엄마, 우리 집...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라는 말로써 서로를 공유하려 하는지 잘 나타내주는 예이다. 이런 개념은 서양의 ‘I’처럼 내 것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역사나 우리말에서 공동체 개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자유훈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아주 개인적인 가치나 기준이 사회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이 내 주변 사람 모두의 생각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공동체 집단의식을 만들어가는 반면, 한편에서는 왜곡되고 비이성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최근 일어나는 사회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공장폐수를 마구 흘려보낸 주조 공장 사장, 교객의 돈을 횡령한 금융직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10년 동안 착취해 온 중소기업 사장 등...

그들이 한 번만 더불어 사는 주위 사

람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나 잘못된 판단력에서 행한 행동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얼마나 부정적 파급력을 지니는지 우리는 절실히 보고 느끼며 살고 있다.

나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며 내가 속한 집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자. 본인이 속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호받고 싶다면, 개인도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는 다해야 한다. 그 시작이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 의식의 기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규칙과 질서를 잘 지치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찾아가는,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태도이다. 말로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의식이 제대로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와 상관 없다고 환경을 마구 훼손하는 행동,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행동,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욕하는 행동, 장애인 주차 공간이 비어 있다고 자연스럽게 차를 대는 행동 등 기본을 지키지 않는 생활태도도 왜곡된 행동이다.

복잡한 사회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에서부터, ‘나’부터, ‘우리집’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기에,

(시의원)

■ 독자의詩

그리운 어머니

아련히 들리는 듯 어머니의 목소리

고요한 밤이면 끝없이 그리워집니다.

꿈에서나 어머니를 만나 봅니다.

수없이 좌절할 수 있는 구실들이

너무 많은 나의 인생

오늘도 지난 절었던 시절

어머니가 하신 말씀 잊을 수 없어

휘영청 달빛아래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나도 울고

소쩍새도 따라 우는 구나.



박종운

(대연6동)